

## 초국적 정체성의 형성 - 귀환동포가 들려주는 냉전시기 대중매체 경험의 문화정치

조일동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

### - 목차 -

1. 들어가며
2. 연구목적
3. 사할린 동포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4. "창가노트" 이야기
5. 민족정체성의 전략적 사용
6. 나오며: 귀환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창가노트"의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 1. 들어가며

2014년 2월 어느 날, 나는 연구프로젝트의 인터뷰 대상으로 만났던 사할린 영구귀국동포(Sakhalin Korean Repatriate) 할머니 한 분으로부터 공연초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사할린 영구귀국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고향마을' 주민 노래패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고, 나는 언제라도 노래패가 무대에

오르게 되면 연락 달라고 부탁 드렸던 상황이었다. 공연장소에 도착한 나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시장예비후보의 출마준비보고 형식의 행사였기 때문이다. 무대 뒤를 찾았을 때, 나에게 전화를 준 서씨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사할린에서 영구귀국한 다른 친구 두 명 모두 꽃분홍 한복에 어울리는 화사한 화장을 끝내고 목을 풀고 계셨다. 행사 취지에 대해 물으니, “우리 노래패 선생님”의 부탁으로 온 것일 뿐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큰 관심도 없었다.

사회자는 시장예비후보자가 안산지역 시민사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지지를 얻고 있다며, 10대 초반 초등학생, 40대 초반의 정치활동가 노래 모임, 그리고 80대 할머니들이 시장예비후보 출마를 축하하러 왔다고 소개했다. 세 할머니 아마추어 가수는 “‘고향마을’에서 온 ‘안산 은방울자매’”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오른 세 여성은 첫 곡으로 ‘마포중점’을 신나게 부르기 시작했다. 은방울자매가 1967년 처음 발표한 이 노래를 부르던 중 마이크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세 여성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서로 마이크를 돌려가며 이 후로도 두 곡을 무사히 마치고 무대를 내려왔다. 무대에서 내려온 이들의 얼굴은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다. 중간중간 마이크 하나가 갑자기 고장 나서 평소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다소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보다 젊은 관객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에 살짝 들뜬 느낌이 훨씬 짙었다.

이날의 행사에서 그 정치인이 할머니들을 모신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동포들도 자신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주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노년층도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다. 할머니들의 공연이 그의 지지율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날 정치 행사를 찾은 지지자 대부분이 생각하는 ‘마포중점’과 할머니들의 ‘마포중점’은 같은 노래지만 전혀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누구에겐 이 노래가 한물간 가수의 한물간 평범한 대중가요일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마포중점’은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냉전시기 소련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할린 한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위반, 저항의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노래다. 동시에 냉전의 한 축으로 세계 최강국 소련의 정치, 경제적 호황기를 온 몸으로 느끼며 젊음의 한 시기를 보낸 이들의 추억과 로망도 곁들여진 노래기도 하다. 아래에서 나는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의 생애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대중음악 경험과 민족정체성의 형성, 삶의 맥락 변화 과정에서 정체성의 사용 방식과 전략, 그리고 이 모두가 의미하는 바를 따져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이 글은 대중매체를 통해 재외한인의 초국가적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이 정체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특히 냉전시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이 전파월경을 통해 수신하게 된 남한의 중파(AM)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해진 남한의 대중가요, 그리고 이 음악을 접하고 변화한 일상, 또 이러한 변화를 일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행위에 주목한다.

연구의 시작은 단순했다. 필자가 2013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에 참가한 협력적 생애사(the Collaborative Life-Histories) 구술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때문이었다. 한 사할린 영구귀국자 할머니가 사할린에서의 삶을 얘기하다 “한국 방송을 들었는데”라는 대목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 자체로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냉전시대 사할린서 적대국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다니…. 꼭 같은 것은 아니었으나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그러한 경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는 얘기도 또 나왔다. 흥미롭게도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할아버지에게서도 비슷한 경험이 구술되었다. 이들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필자는 개별적인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같은 노래패나 무용패 등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소개받아가며 비밀리에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의 여러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추후에는 국가, 지역별로 이러한 경험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논의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에서 남한의 대중가요를 접했다는 사실, 또 이 내용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방식은 모두 비밀스럽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구성했으며, 이 과정 자체가 소수자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방식이 되었다. 남한의 라디오를 중국 연변이나 사할린 등지에서 비밀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전파월경(electric wave crossing a border / spill-over)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중파방송(AM broadcasting)이 가진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 중파방송은 소리 품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고도 100~110Km 높이의 전리층의 스포라딕 E층에서 반사되어 전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천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리 D층이 얇아지는 야간에는 전리층 반사파의 영향으로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전파가 송출될 수 있다. 유럽 지역으로 송출하는 영국의 BBC 월드는 야간 송신의 이점을 키우기 위해 밤 시간대에 고출력 방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1972년 “사회교육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KBS 한민족방송 역시 중파방송의 장점을 강화하여 야간에 고출력(주간 750kw / 야간 1500kw)으로 송출을 하

며, 북한과 일본 전역, 중국 및 러시아의 일부까지 방송이 도달한다. 하지만 중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파방해가 일어나 수신이 어렵고, 기상상황에 따라 전파의 전달 강도도 수시로 변화한다. 따라서 중파방송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송신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 스토크스(Stokes ed. 1997), 코넬과 김슨(Cornell and Gibson 2003), 왕(Wong 2004) 등 많은 학자들이 디아스포라 혹은 초국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민족정체성 전략과 음악을 포함한 대중문화 소비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송출국의 대중문화를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접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본국에서와 다른 의미의 문화적 영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Guilbault 2001; Zheng 2010),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기도(Cambell 2010) 한다. 디아스포라에게 고향과 고향으로 이미지 되는 공간의 대중음악이 민족정체성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는 연구는 많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냉전이라는 시대적 장벽의 존재, 전파월경이라는 우연성 등이 더해져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 사례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조선-일본-소련-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의 영구귀국을 결심한 연구대상자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또 한 번의 국경을 넘는 이주를 통해 생의 대부분을 보낸 러시아(사할린)과 전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우해야 했다. 새롭게 맞이한 노년의 삶에서 젊은 시절의 음악적 경험은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음도 확인했다.

### 3. 사할린 동포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앞서 다뤘던 ‘안산 은방울자매’가 부른 ‘마포종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할린 동포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에도 연해주를 거쳐 사할린까지 이른 조선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 대부분은 1905년 러일 전쟁의 결과로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가라후토)이 일본의 영토가 되면서 이주하게 된 이들의 자손이다. 일본의 사할린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1920년대에 조선인의 이주도 본격화되었다. 이주와 강제동원 모두 1938년부터 194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시기의 이주자는 주로 경상도 지역 출신이었고, 석탄광산, 벌목장, 어업에 종사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호적에 등재된 일본국

적자는 1946년을 시작으로 1957년까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조선훈적에 등재되었던 이들은 계속 사할린에 남겨지게 되었다.

일본이 물러나고 소련 당국이 사할린을 완전히 통치하기 전부터 조선인들은 조선어 교육을 하는 자치적 학교를 만들었다. 소련 당국 역시 이러한 한인의 민족활동을 특별하게 금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필자가 만난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조선인 사범학교 2기 졸업생도 있었다. 사할린의 노동인력 부족을 걱정한 소련은 1946년부터 북한과 노동계약을 맺고 북한 노동자를 받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교과서나 교육자료가 사할린 동포들에게 지원되었다. 또한 북한 예술단이 사할린 방문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 자극 받아 사할린 동포를 중심으로 한 ‘조선악단’이 만들어진다. 조선악단은 당시에 ‘조선노래’라고 일컬어지던 일제강점기의 조선대중가요와 민요, 북한에서 새롭게 편곡된 민요 등을 연주했다. 조선악단은 사할린 뿐 아니라 큰땅(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원정공연을 떠날 정도로 소련 전역의 한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모든 민족교육, 민족음악 활동은 1953년 흐루쇼프(Nikita Khrushchov) 시대와 함께 막을 내렸다. 흐루쇼프는 강력한 소련 국민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수민족 지원 정책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의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모임도 금지시켰다. 소련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남아있던 대부분의 조선인의 활동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고, 조선악단 역시 해체되었다.

흥미롭게도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이 혼란기에 일본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던 기억을 기술했다. 해방 무렵 독일산 라디오를 입수했고, 덕분에 일본 방송을 집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방송을 듣는 것은 사할린에 남겨진 조선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 누구도 일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조선인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와중에 일본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흐루쇼프 이후, 이러한 낚새조차 드러나지 않게 서로 조심하게 되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송출한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을 구술한 이는 1954년 소련 국적을 취득하고 모스크바로 이주했기에 한국 라디오 방송 청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확실한 것은 사할린 지역에서 월경하는 라디오 청취 경험이 소련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과 흐루쇼프 정권 이후로 라디오 비밀 청취나 민족 정체성을 걸어로 드러내는 발언이나 행위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 4. “창가노트” 이야기

이제 ‘마포종점’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와 같이 흐루쇼프 정권은 소수민족의 문화 / 예술 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대중음악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52-3년의 남로당계 숙청과 함께 남도민요와 판소리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던 일제시대 음반의 형태로 널리 알려진 조선민요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사대주의와 자유주의를 비판하며 유럽식 오페라의 요소 또한 북한 대중음악 내부에서 거세되기 시작했다. 민요에 바탕을 두되 사회주의적인 음악의 완성이 주창되면서 탁성과 쇠소리, 꺾임이 심한 남도식 민요는 복고주의로 몰리게 되었다. 혁명가에는 곡 구조와 연주 형식에는 러시아식 행진곡의 요소가 적극 반영되었고, 가창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서도민요의 형식을 바탕으로 맑은 진성 중심으로 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북한 대중음악은 사할린 조선인의 정서와 조우하기 어려웠다. 사할린 조선인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이었고, 이들의 민요 취향은 경서도 민요보다 남도민요에 더 가까웠다. 또한 조선악단에서 활동했던 이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미국식 악곡에도 익숙한 이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조선악단에서 활동했던 아코디언 연주자 전진수씨가 생전에 정리한 악보에 미국 민요나 유럽 클래식을 채보한 것이 한국 민요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도 이상하지 않다.

월경하는 일본 라디오 방송을 몰래 청취한 경험에 대한 회고를 고려하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중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는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일본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먼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일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전리 D층이 얇아지기도 하는 겨울철에는 낮에도 한국의 라디오 전파가 월경할 수 있겠지만, 이를 청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으리라. 1960년대 흐루쇼프는 냉전 상황에서 소련의 체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경공업 증진, 주택계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사상적 검열도 강화시켰다. 라디오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라디오 방송은 체제 승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소련과 중국은 모두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소수민족을 위한 지역 방송(표준어 및 체제 홍보와 교육 수단으로)에 단파방송(short wave radio)을 적극 활용했다. 단파방송 라디오의 폭넓은 밴드(단파 방송 라디오는 보통 AM과 FM의 밴드를 모두 포함한다) 역시 월경하는 방송을 수신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 강화 시기에 한국에서 월경하는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때로는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는 행위였다.

월경하는 라디오의 약한 전파, 기상에 주변 환경에 따른 간섭, 이웃과 주변의 시선, 일상이 된 비밀경찰의 감시 등의 이유로 편하게 라디오를 감상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한국 라디오는 전파가 잡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조금씩 청취가 가능했다. 따라서 길게 사연이나 이야기가 이어지는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에 비해 음악은 이렇게 끊기더라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당시에 라디오로 들었던(혹은 이를 기초로 나누었던) 노래로 꼽는 김세레나의 '새타령', 배호의 '갈대의 순정', 이미자의 '눈물이 진주라면' 등은 모두 1960년대 중후반에 발표되어 사랑 받은 곡이다. 월경하는 라디오의 청취가 시작된 시기 역시 이 노래들의 전성기와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가 퍼지기 유리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은 노래가사를 몰래 적으며 배웠기 때문이다. 한 곡을 통째로 여유 있게 들을 수 없던 이들은 들리는 만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가사를 적었다. 한 줄을 적을 수도 있고, 단어 몇 개만 겨우 적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조각조각 잘려진 가사와 멜로디는 다른 한인과의 만남에서 다시 재조립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소수민족의 모임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결혼식, 장례식, 회갑연 등의 모임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도 비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혼자 끄적이던 토막 난 노랫말은 다른 사람의 기억, 메모와 만나 하나의 노래로 완성되어 갔다.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남한의 대중가요를 잔치에서 부르며 춤추는 것은 사할린 조선인 사이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회갑연은 손으로 가사를 필사하는 모임이자, 필사하며 멜로디를 이어 붙이고, 함께 부르며 연습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손으로 적은 가사 모음집을 '창가노트'라 부른다. 노래를 부르기 위한 노트 정도의 의미이리라. 창가노트는 단순히 노래 가사만 필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감정이 모두 녹아있는 매체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함의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낡고 험은 노트를 한 장 한 장 다시 필사하여 만든 이도 있다. 수십, 수백 번을 부르며 가사가 아무리 입에 붙어도 창가노트는 다른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러시아에 자녀를 남겨두고 부부만 귀국 길에 오른 이들에게 이 노트는 젊은 시절, 가장 열심히 삶을 헤쳐나가던 시기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5. 민족정체성의 전략적 사용

그러나 여전히 냉전 시기 소련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사를 적어가며 노래를 나눠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월경하는 라디오나 창가노트, 남한의 노래를 불렀던 기억을 가진 이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은 이 음악이 듣기 편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사할린에서 태어났건, 어린 시절 이주해왔건, 실질적으로 이주를 감행한 이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고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상도 지역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한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친근했다고 말한다. 부분적으로 사실일 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창가노트’의 존재는 좀 더 복잡한 층위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사할린 영구귀국자의 생애사를 듣다 보면, 소련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조선어 방송 송출을 위한 것이었다곤 하나 모스크바 중앙 방송국까지 진출했던 방송 진행자, 재봉공장의 최고 기술자까지 승진했던 할머니, 러시아어 능력이 원어민보다 못했지만 공업대학에서 강의했던 할아버지 등 다양한 성공과 성취 사례가 나열된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 인물의 입에서 어느 지위 이상으로 승진하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회상이 매번 함께 이어진다.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순 없으나 분명히 느껴지는 소수민족 차별의 벽 앞에서 한인들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월경하는 라디오의 비밀청취와 이 내용의 공유는 소수민족 정체성의 확인이자, 소극적인 저항인 동시에 사할린-조선인 공동체 내부의 연결을 강화하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했다.

민족정체성은 한계이기도 했지만 다른 종류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틈새이기도 했다. 창가노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1960년대 한국 대중가요를 들으면 다시 편하고 행복해진다는 협력적 생애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여성의 생애는 한계이자 가능성인 소수민족의 전략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1939년생인 그녀는 사할린에서 유일하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사범전문학교였던 조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러시아어 능력, 조선인 여성이라는 지위는 의대 진학의 걸림돌이었다. 이 와중에 접한 북한의 무상 교육 기회 제공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 조부모의 손에 자라면서 경상도 사투리지만 또래 혹은 조선어 교원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에 친숙했던 그녀는 북한행을 결심한다. 함흥의대를 마칠 무렵 북한 당국은 졸업의 조건으로 국적변경을 요구했다. 와중에 체육 교원이던 남편이 수영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지는 불운에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와 버렸다. 의사 면허는 없었지만 의대 수료 사실을 증명한 그녀는 러시아에서 6개월의 추가 교육을 이수 한 후 의사로 방역소에서 일하게 된다. 퇴근 후에는 조선어 능력을 살려서 사할린의 한인 2세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는 일종의 야학(“구락부”)에서 선생님이기도 활동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민족정체성과 국적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좋은 사례다. 언어 능력의 차별을 북한에서의 의학교육 이수로 우회하고, 북한의 국적획득 강요는 러시아 시민권을 사용하여 피했다. 소수민족 생존전략으로 국민과 민족 정체성을 모두 효과적으로 구사한 것이다.

창가노트의 존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고향을 잊지 않거나 향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네트워크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인 것이다. 러시아인의 차별 속에서 맥락에 따라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소련 국민의 정체성을 주장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냉전 시기 비밀리에 들은 라디오, 노래의 공유 과정은 한국과 조선민족에 대한 신비화를 만들었다. 여기서의 한국은 실제 한국과는 특별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일종의 판타지 속 고향인 것이다. 친척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냉전 시대에 소련에 거주하는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었다. 1950년대 소련정부에 고향(남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북한으로 추방당했던 몇 명의 사례가 퍼지면서 경상도 고향은 돌아갈 없는, 그러나 사할린 조선인 네트워크 속에서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이 만들어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상상의 고향은 조금씩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1990년 7월 한국 가수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벌어진 위문공연은 창가노트와 같은 상징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던 한국 / 경상도 - 사할린 한인들의 상상의 공동체적 고향이 현실의 고향으로 마법처럼 변하는 순간이었다. 생애사 구술자 전원이 이 공연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사할린 밖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도 가족과 친지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자신이 본 것처럼 전했다. 여전히 이 기억을 전하며 목소리가 떨리던 이도 있었다. 참여했던 트로트 가수 중심으로 이뤄진 공연단 역시 자신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10만에 가까운 관객 앞에서 함께 울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상상의 고향에서 현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창가노트의 역할은 이제 모두 끝난 것일까?

## 6. 나오며: 귀환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창가노트”의 의미

타의로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의 향의가 일본정부에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1987년

이다. 1990년 일본정부의 사죄표명이 이뤄지고, 한국정부의 1세대에 한한 영구귀국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0년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에 489세대의 사할린 영구귀국자를 위한 아파트 단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고향마을은 현재 한국 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영구귀국자 마을이다. 아파트 단지 중심에는 관리실, 양로원과 여러 복지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80대 이상인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무용교실, 미술교실, 풍물교실 등이 열린다. 자치적으로 사할린에서 부르던 노래를 다시 부르는 노래패도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꾸준히 모여 연습을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소련 시대에 전문 아코디언 연주자였던 전진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노래패는 그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기타 연주가 가능한 이가 반주를 하며 노래 연습을 이어간다. 현재 이 노래패의 연습은 주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서 이뤄지며, 노래 지도는 외부에서 온 주부노래교실 교사의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그런데, 노래패의 연습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곤 한다. 최신식 노래방 기계의 화면에 가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가방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창가노트를 꺼내 가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의 낡은 창가노트에는 매 노래가사 위에 새로운 4-5자리 숫자가 새롭게 기입되어 있다. 노래방 기계에 담긴 그 노래의 번호를 적어놓은 것이다.

러시아에 남은 가족과 헤어져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영구귀국자들은 새로운 차별과 마주한다. 필자 역시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언어적 장벽이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손 쳐도 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러시아어와 일본어가 혼재되어 있다. 초등교육을 일본학교에서 이수했고, 고등교육은 러시아어로 이뤄졌으며, 생애 대부분을 러시아인과 한 직장에서 살아온 이들이다. 어쩌면 이들이 한국어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인은 첫 마디부터 “어디서 오셨어요? 말이 이상해요”라는 반응부터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마을 사람들이 행여 자신의 일본-러시아-한국어 능력을 사용해 사업을 벌이거나, 취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보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영구귀국 조건에 있던 조항 위반이라며 경고장이 날아온다.

예상 외의 현실 속에서 이들은 오늘도 창가노트를 꺼내 들고 노래를 부른다. 창가노트는 이제 판타지 속 고향으로 한인을 묶어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구성해주는 장치가 아니다. 대신 창가노트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다시 남은 사할린 영구귀국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며, 현재를 견디게 만드는 초국가적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고 있다. 창가노트는 냉전시대의 아픈 유산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조직하는 현재 진행형의 상징이다.

[참고문헌]

Appadurai, Arjun.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ampbell, Sean. 2010. "Displaced Sounds: Popular Music-Making among the Irish Diaspora in England" in Lebin, Erik and Scheduling, Florian Ed. *Music and Displacement*. Maryland: The Scarecrow Press. pp. 89-104.

Connell, John and Gibson, Chris. 2002. *Sound Tracks: Popular Music, Identity and Place*. Oxon: Routledge

Guillbault, Jocelyne. 2001. "World Music". in Frith, Simon, Straw, Will and Street, Joh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6-192.

Small, Christopher. 1998. *Musicking: The Meanings of Performing and Listening*. Wesleyan University Press.

Stoke, Martin Ed. 1997. *Ethnicity, Identity and Music: The Musical Construction of Pla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Wong, Deborah. 2004. *Speak it Louder: Asian Americans Making Music*. New York: Routledge.

Zheng, Su. 2010. *Claiming Diaspora: Music, Transnationalism, and Cultural Politics in Asian/Chinese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정하미. 2013. "'사찰린연구'의 전개와 '樺太'자료 : 인구조사와 가라후토청 경찰자료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Vol. 94. pp. 249-269.

천현식. 2013. [북한의 가극 연구]. 서울: 선인.

[Abstract]

## **Formation of transnational identities through popular media among ethnic Koreans**

Ildong Joe

Institution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point out the formation of transnational identities through popular media among ethnic Koreans, especially those who lived in a socialist/post-socialist country in bot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eras. During the Cold War period, listening to radio from South Korea was a dangerous act to a point of life threatening. But many ethnic Korean returnees from Russia (especially Sakhalin) and China spoke out their experiences of listening secretly to South Korean radio broadcastings in their oral life histories. From the South Korean radio programs and popular songs, they would construct various images and fantasies of South Korea. These imaginations were not just about South Korea, a nation-state, but more about their diasporic identities and public spheres.

When Cold War and Post-Cold War politics compete around North and South Korea, an imagination of (South) Korea through popular media is a social project of everyday life. At one point ethnic Koreans abroad made their mind and chose South Korea as their homeland. Soon they found ways to migrate or 'return' to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 process became nuanced and evolved. Their experiences, performances, and activities around South Korean popular music and media in Socialist worlds are not only an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but also strategies for making their own identities as transnational ethnic Koreans. The transnational identities of ethnic Koreans as life strategies are mapped out over multiple borders, times and ideologies.